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본 왕의 위락활동 유형과 변천*

강현민* · 신상섭** · 김현욱*** · 마일초**** · 한서정****

*(주)정신건설 대표이사 ·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겸임교수 ·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A Study on the Types and Changes of the King's Amusement Activities through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Kang, Hyun-Min* · Shin, Sang-Sup** · Kim, Hyun-Wuk*** · Ma, Yi-Chu**** · Han, Rui-Ting****

*CEO. Jeongsin Engineering & Construction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ersity

****Doctoral Course, Graduate School, Woosuk University

ABSTRACT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s a book recording the Joseon Dynasty's historical facts in an annalistic format. The King's amusement activities through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ere established by the Ye-ak(禮樂) system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king's amusement activities that were performed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could be classified as state banquets, military banquets, and banquets for play. The analysis of the king's amusement activity was divided into five stages. The characteristic of [1 period : King Taejo~Sejo(Yejong)] was dominated the military banquets of the Goryeo Dynasty. Neo-Confucianism is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and social turning of the ballast, considerations of military culture, culture, and Hoeryejeon Jimpungejeong, a cloud of dust and elders banquets such as Giroyeon and Yangnoyeon on the nature of the party. A lasting ordinance was institutionalized[2 period : King Seongjong~Jungjong]. In the chopper and jeongyujaeran, Hong Kyung Rae led a royal amusement activities are stagnant, often produce isolated storage compute in the gloomy situation[3 period : King Injong~Hyeonjong]. Revival period is pride of the amusement activity through the culture of Joseon Dynasty royal culture [4 period : King Sukjong~Jeongjo]. The throne, crashed due to political power is an ebb of royal amusement activities, while also rapidly waning[5 period : King Seonjo~Seonjong].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hunting took place around the forest area northeast of Hanyang and during King Seongjong's period, it took place closer to the capital city, while in Lord Yeonsan's period, it was expanded to a 39 kilometer radius area from the palace, and banquets such as various forms of entertainment of Cheoyongmu, and Flower-viewing. The Joseon kings who enjoyed hunting were King Sejong, Sejo, Seongjong, Yeonsan, and Jungjong. Most of hunting objects were tigers, bears, deer and roe deer, leopards, boars, their animals and falconry took, and the purpose of the hunting was to perform ancestral rites to the royal ancestry or the royal tombs. Lord Yeonsan's hunting activities had negative effects after King Jungjong the king's hunting activity decreased sharply. However, there were also positive aspects of Lord Yeonsan's Prohibition of cutting woods ect. In conclusion, the expansion of the King's garden(庭:courtyard→園:privacy garden→苑:king's garden→苑囿:national hunting park) is evident which starts from formal and informal activities that took place in Oejo, Chijo, and Yeonjo, which went further to the separate and secret gardens, and then even further, thus setting the amusement activity area as a 39 kilometer radius range from Hanyang.

Key words: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unting, National Hunting Garden, King's Amusement Activities, King's Garden

* 이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성과를 정리한 내용임.

† **Corresponding Author** : Shin, Sang-Sup,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ersity, Wanju, 55338, South Korea, Tel. : +82-63-290-1492, ssshin@woosuk.ac.kr

국문초록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선시대 제왕들의 위락활동과 변천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궁중 안팎 외부공간에서 행해진 왕의 위락활동은 연회형, 강무형, 유희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연회형은 회례연, 진연(進宴), 풍정(豊呈), 진찬(進饌), 양로연, 사신연, 수연(壽宴), 곡연(曲宴) 등이었고, 강무형은 활쏘기, 격구, 사냥 등이며, 유희형은 나례(가면놀이), 처용무, 풍두희(豐頭戲), 그리고 화산봉(불꽃놀이), 꽃놀이(賞花), 투호, 수박희(手搏戲), 낚시, 뱃놀이, 각투(角鬪), 상희(象戲), 잡희 등이었다. 위락 활동은 고려시대 답습기[1기, 태조~세조(예종)], 확립기[2기, 군사문화가 성리학 문화로 전환되었고 연회의 규례가 제도화, 성종~중종]. 단절기[3기, 임진왜란 등 불안한 정세 속에서 침체, 단절 초래, 성종~현종]. 중흥기[4기, 위락 문화 재정비, 수준 높은 왕실 문화의 자긍심 표출, 숙종~정조]. 그리고 쇠퇴기[5기, 세도정치로 왕권이 추락하면서 위락 활동이 급격히 퇴조, 순조~순종] 등 5단계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왕들의 사냥 관련 기사는 600건 이상 추적 되는데, 태종, 세종, 세조 등은 각 100여회 이상이었다. 사냥 대상은 호랑이, 곰, 사슴과 노루, 표범, 멧돼지, 매 등 이었고, 한양의 동북쪽 산림지역에서 주로 행해졌는데, 산수풍광이 수려하고 지리에 익숙한 풍양, 철원지역 등 북방의 정세와 안전을 살피기 위한 방안, 그리고 풍양이궁(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장소성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단오절 세시풍속으로 대중에 확산된 격구놀이는 조선 초 왕과 신하들의 최상류층 마상격구로부터, 중기이후 무과시험의 마상격구와 상류층의 보상격구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 확산되어 겨울철 남성들의 집단위락문화로 전승되는 과정이 추적된다. 특히, 강무형 위락문화는 봄(활쏘기), 여름(투호), 가을(활쏘기), 겨울(격구) 등 심신수양을 겸한 4계절 행위요소로 작용되었다. 한편, 조선시대 왕과 왕비들의 연향과 같은 위락 활동은 공식적 의례의 경우 내정(內庭)에서, 비공식적 관유(觀遊)의 경우 궁궐 후원이나 별궁에서, 특수 연회의 경우 모화관과 태평관, 기로소 등 별원(別園)에서, 활쏘기의 경우 성균관 사단에서, 사냥의 경우 금표가 설치된 강무장(금원과 원유)에서, 매사냥의 경우 한강변 광나루에서, 격구의 경우 보격구 중심으로 내정이나 별궁에서 다양하게 행해졌다. 즉, 외조, 치조, 연조, 후원의 범위를 넘어서 별원과 금원, 원유 등 한양에서 최대 100리 범위 까지를 활동영역으로 설정하는 위락문화 확장성(庭→園 →苑→苑圃)을 추적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수준 높은 기록문화의 추적을 통해, 역대 왕들의 위락문화를 연회형, 강무형, 유희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고, 위락 활동(진찬, 회례연, 양로연, 대사례, 사신연 등은 물론 사냥, 활쏘기, 격구, 투호, 처용무, 낚시, 뱃놀이, 불꽃놀이 등) 전모와 장소성, 그리고 상징적 의미, 역사적인 전승과정과 위락문화 등을 복합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주제어: 사냥, 왕의 정원(苑), 왕의 위락활동, 원유(苑圃), 조선왕조실록

1. 서론

위락문화는 상대적으로 폐쇄된 내부공간보다 열린 외부공간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내용을 갖고 펼쳐졌다. 인간의 기본적인 위락 활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재충전 하는 목적이었으며, 사회통념이 개입되었고 장소는 문화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조선 왕들의 위락활동은 심신의 위로와 안락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자기 성찰 속에서 참자아를 발견하고 도덕률을 실현하는 성리학적 가치관과 연계된다. 사회적, 개인적인 성향도 다양하게 작용되지만, 본질적으로 군신(君臣)간의 소통 속에 여민락(與民樂)의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격식있는 위락 활동은 최상류층이 향유했던 전통 공간 문화의 특수성을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조경영역에서 조선시대 왕들의 위락 활동 관련 선행연구는 특정 왕의 시기와 특정 행위에 국한되었으며, 여타 학문분야 또한 역사적 측면, 스포츠 활동, 그리고 연향과 같은 특정 연회

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교육학 분야에서 성균관 대사례 시행의 역사적·교육적 의의를 도출했고[1], 미학 분야에서 궁중 연향도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의 시대사적 양상을 분석했으며[2], 진연을 중심으로 궁중 연향 유형을 고찰하였다[3]. 한편, 체육학 영역에서 왕들의 스포츠 활동 관련 위락문화를 도출하였고[4], 조경학 영역에서 궁궐을 대상으로 격구회와 구정의 역사적 고찰을 시도했으며[5], 정조의 활쏘기 등 궁원에서 즐긴 위락실태를 규명하였다[6].

즉,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특정 왕과 특정 분야에 대한 중점 연구라는 단서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친 왕들의 다양한 위락문화 활동 관련 보편성 및 차별성 등을 도출하는 전수조사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행해진 왕들의 위락활동 유형과 목적을 추적하였으며, 통시적으로 작용된 위락활동의 각 왕별 변천사와 특수성, 그리고 장소성 등을 전수조사, 분석하여 시기에 따른 차별성, 활동 영역의 정치사회적 연계성 측면 등을 도출코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조선 왕들의 위락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기본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번역본[7]이며, 『경국대전』[8], 『승정원일기』, 『의궤』 등 사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왕들의 위락 활동은 개인적 유희의 범주를 뛰어넘어 성리학 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문화적 행위와 연계된다. 즉, 아정한 음악과 영향의례를 제정하여, 공경함을 잃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정(情)을 돈독하게 하였다¹⁾. 참된 즐거움은 화평한 마음에서 나오고, 화평함은 바른 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²⁾. 위락활동과 관련한 대표적 궁중 연회 사례로 화례연, 양로연, 진연을 들 수 있다. 논문전개의 주제어 ‘위락(慰樂)’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위로와 안락을 아우르는 단어로 시간적 여가와 활동적 유희 개념을 포괄하는 복합 유락문화 활동으로 정의코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9][10][11],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추출된 조선시대 왕들의 위락활동 유형은 ① 연회(宴會, 기쁜 일이 있을 때 궁중에서 펼쳐지는 잔치), ② 강무(講武, 군사,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 사냥 등을 행하는 야외 훈련, 활동), ③ 유희(遊戱, 즐겁게 놀며 장난치는 실내외 활동) 유형으로 대별화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시대 전 기간(1392-1910)을 대상으로 하였고, 태조로부터 순종에 이르는 역대 왕들의 위락활동 관련 유형은 주제어 추출, 비교분석과정을 거쳐 ① 연회형(정재, 일상연회, 외교연회 등), ② 강무형(활쏘기, 사냥, 매사냥, 격구 등), ③ 유희형(낙시, 불꽃놀이, 노래, 산대나레, 수박희, 처석희, 투호, 장기, 바둑 등)으로 중, 소분류 하였다.

선정된 위락활동 관련 주제어를 통해 태조부터 순종까지 27대 왕들의 관련 내용을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을 통해 전수 조사하였다. 연구내용은 ① 왕의 위락 활동 내용과 시기, ② 위락활동

유형별 변천시기와 목적을 분석하여 계열화 하였으며, ③ 시대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위락 활동의 본질적 의미를 정치 및 사회적 속성, 의도와 연계시켜 분석하였다. 즉, 조선시대 왕의 위락 활동을 유형화하였고 시대별로 각 행위를 빈도 분석하여, 위락 활동의 특수성과 변천과정을 정치 및 사회문화적 관점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사, 분석과정을 거쳐 조선시대 왕들의 유형별 위락활동(연회형, 강무형, 유희형), 시기별 변천과정(답습기, 확립기, 단절기, 증흥기, 쇠퇴기), 장소특성, 그리고 위락문화 전개양상(庭→園→苑→苑圃) 등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Table 1.)

III. 결과 및 고찰

1. 왕의 위락활동 유형과 시기

조선시대 시기분류와 관련하여 한국사학계에서는 전기(관학파 집권기), 중기(사림파 집권기), 후기(세도정치기)의 3시기로 구분하고 있다[12]. 그러나 본 연구는 왕들의 위락활동이라고 하는 문화적 측면, 연산군 집권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락활동의 변천과정과 차별화된 용어 채택을 보다 세분화시켜 시기구분을 채택하였다.

즉,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분석한 왕의 위락 활동은 국가 창업기, 증흥기, 안정기, 그리고 쇠퇴기 등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적 속성과의 유기적 연동을 반영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5단계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13].

1기[태조~세조(예종)]는 개국 초기 고려의 군사문화가 영향을 미치며 서서히 조선의 성리학 문화로 변환되는 과정적 시점으로 외교연회와 강무 활동 등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행해졌던 시기이다.

2기[성종~중종]는 국가기반이 안정되면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국가 이념으로 확립되었으며, 사냥, 매사냥, 격구 같은 강무형 위락 활동은 점점 쇠퇴한 반면 연회형과 유희형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는 시기이다. 단, 예외적으로 연산군의 사냥 활동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왕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락을 위한 위락 활동의 본질적인 측면과 연회 활동 목적은 1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기[인종~현종]는 전란 등으로 인해 연회가 많이 행해지지 않는 침체 양상인 반면, 상대적으로 외교 행사인 사신연이 주를 이루었다. 강무형의 위락 활동 또한 더욱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전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연산군 때의 과도한 피해와 반정으로 인한 권문세도가의 정치권력 강화 등이 작용되었기 때문이었다.

Table 1. Type of the Amusement Activity

Classification	Type	Similar Term
National-Banquet	Banquet	Hoeryeyeon, Jinpungjeong, Pungjeong, Jinyeon, Jinchan, Jinjak etc.
Military-Banquet	Hunting	Spring., Summe, Fall, Winter-Hunting etc.
	Hawking	Eungbang
	Archery	Seeing-Archery Testing-Archery etc.
	Gyeokgu	Hit Ball, Pogu, Bonghee etc.
Play-Banquets	Fishing	Seeing-Fish, Fishing etc
	Play-Watching	Subakui, Narye, Japui, Seokcheokui, Tuho etc.
	Fireworks	Hwasanbung etc.

4기[숙종~정조]는 영조의 문화 복원 정책으로 다양한 의궤들이 작성되었고, 연회형, 강무형, 유희형 등 전반적인 위락 활동은 다시한번 증흥기를 맞이하였다. 이시기 본격적으로 조선의 문화 복원이 추진되었고, 특히 정조의 수원화성, 규장각 건설과 장용대의 설치 등이 대표적 사례였다. 하지만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활쏘기 등의 강무형 위락 활동은 물론 연회형과 유희형 위락활동 또한 급격히 쇠퇴하는 시대상을 보여준다.

5기[순조~순종]에는 조선 말기시기로 왕권이 추락하고 세도정치의 영향력 강화 등으로 연회형, 강무형, 유희형 등 모든 영역에서 위락활동의 쇠퇴 현상을 보여준다. 다만, 고종 때 진찬, 진연 등 연회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외적으로 국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성과 연계된다.

이를 시기별로 유형화 하여 조선시대 왕들의 위락활동을 종합하여 보면, 1기는 답습기, 2기는 확립기, 3기는 단절기, 4기는 증흥기, 5기는 쇠퇴기로 규정할 수 있다(Table 2).

Table 2. Period Division of the King's Amusement Activities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Characteristics	Remarks
1 King Taejo ~ Sejo(Yejong)	Culture in the Goryeo Dynasty.	Perpetuating a Period
2 King Seongjong ~ Jungjong	Neo-Confucianism	The Establishment a Period
3 King Injong ~ Hyeonjong	War & Violence politics	Generation Gap of a Period
4 King Sukjong ~ Jeongjo	The Restoration of Neo-Confucianism	Revival Period
5 King Seonjo ~ Seonjong	The Fall of the Throne	Declining Period

2. 유형별 위락활동의 변천

1) 연회형 위락활동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한 연회형 위락 활동은 회례연, 풍정, 진풍정, 진연, 진작, 양로연, 기로연, 곡연, 소연, 수연 등 총 217 회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회례연은 총 21회인데, 세종(5회), 성종(10회)때 많았다. 양로연은 총 48회인데, 세종(11회), 세조(18회), 성종(22회), 연산군(9회), 중종(12회)대에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회례연과 양로연은 참가하는 연회의 성격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군신과의 화합과 민본주의가 작용된 연회였다. 한편, 진연(64회), 진찬(37회), 곡연(36회), 진풍정(16회), 풍정(5회), 진작(4회), 기로연(4회), 소연(2회), 수연(1회) 등의 순으로 빈도 분석되었다(Figure 1).

공식 연회는 예조에서 의식절차와 인원을 결정하고 왕에게 허락받는 격조 있는 행사였다. 구체적으로 회례연은 정월 초하루와 동지에 열리는 가장 높은 위계를 지닌 행사였는데, 국왕을 비롯해 왕세자와 문무백관이 모두 참석하였고,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을 제공하였으며, 궁의 정전에서 행해졌다.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회례연이 거행된 것은 아니었는데, 재이관(災異觀)에 따라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왕의 부덕이라 하여 중지한 경우가 많았다.

왕별로 살펴보면 세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그리고 명종 등 회례연을 개최한 왕들은 왕권강화 포석과 태평성대를 연 사회적 안정 시기였다. 군신화합과 진연을 행한 후에 노인들에게 베푸는 양로연 연회의 정신은 명맥을 유지하였다.

‘풍정(豊呈)’은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음식은 물론 가무 등을 행한 잔치 의식을 말하는데, 의식 주관에 의해 풍정도감을 설치했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종과 세조, 연산군과 중종 때 풍정이 많이 거행되었다. 중기 이후 창덕궁 인정전 뜰에서 거행된 인조와 숙종 때 대비의 존숭과 왕권 정통성 강화차원에서 1624년(인조 2), 1630년(인조 8), 1686년(숙종 12) 대비전에 올린 세 차례의 진풍정(進豊呈)을 들 수 있다. 조선 효종 이후 후기에는 위계가 높은 진풍정 대신 궁정에서 진연(進宴)·진작(進爵)·진찬(進饌)이 많이 거행되는데, 궁중잔치의 규모 간소화, 비용절감에 따른 변화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강무를 겸한 풍정은 의식이 엄격했으나, 세종이 거행한 상왕(태조)을 위한 낙천정 풍정은 간소했다. 즉, 세종 2년 1월 7일 세종이 낙천정 별궁에서 풍정을 드리는 기사가 있는데, 왕이 음악을 청했으나 상왕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추적된다.

진연은 조선후기 까지 지속적으로 궁중잔치의 형태로 거행되었는데, 왕비나 대비 등 내명부 중심의 내진연과 왕의 생일 축하와 같은 외진연으로 구분된다. 조선후기 화성 봉수당, 창덕궁 인정전, 창경궁 명정전과 통명전, 덕수궁 함녕전, 경복궁 근정전과 강녕전, 자경전 등에서 내외진찬이 거행되었는데, 1829년 순조 때 거행된 외진찬은 창경궁 명정전에서 내진찬은 경복궁 자경전에서 행해졌고, 의궤 관련그림으로 기록된 진찬도병 중 명정전외진찬도와 자경전내진찬도 등이 전해진다(Figure 2).

회례연, 진풍정, 풍정, 진연, 진찬, 진작의 관계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회례연은 전기, 중기에 나타나는데, 주로 태평성대 시기 때 행해 졌다. 그러나 연산군 섭정 시기만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진풍정은 조선 중기 때 주로 행해졌고, 후기에는 진연과 진찬이 주된 연회 행위였다. 이것은 용어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연회의 규제성향을 지니고 있다. 왕별로 살펴보면, 1기에는 세종, 세조, 2기에는 성종, 연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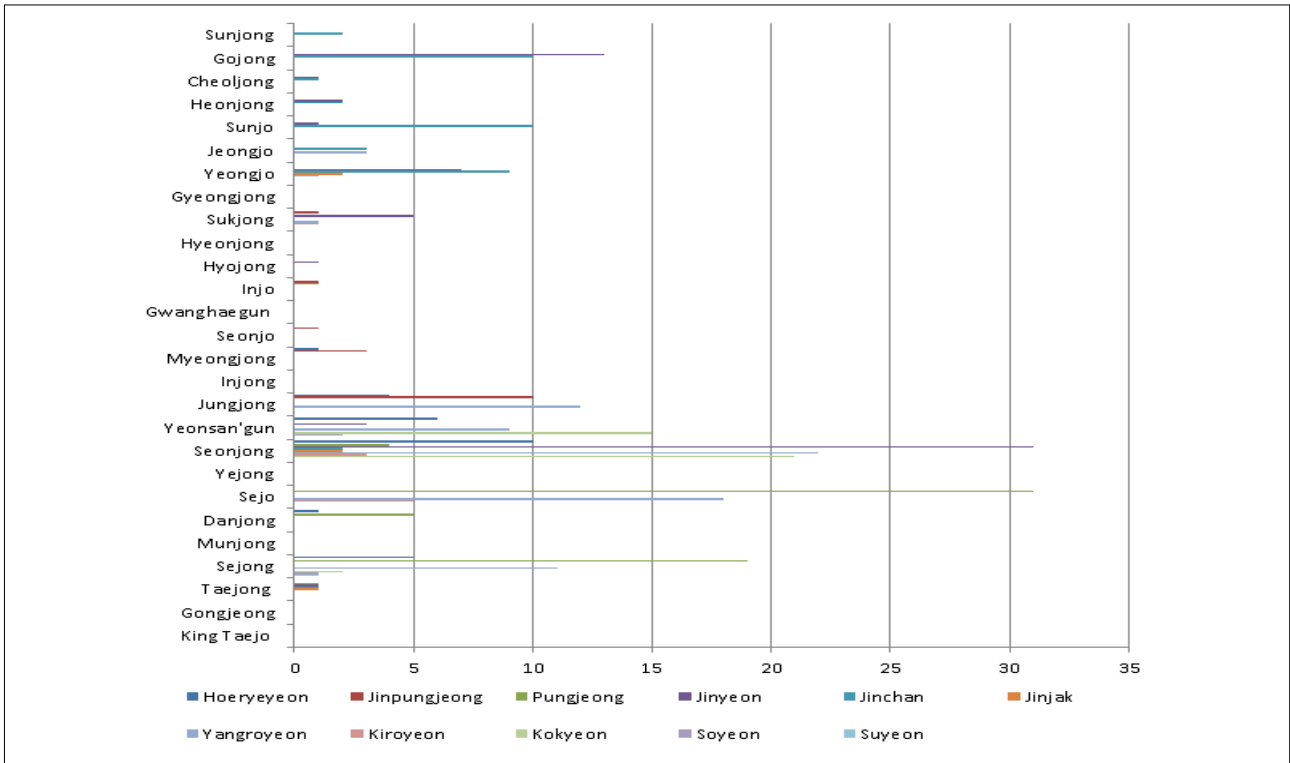


Figure 1. Banquet Activities for the Kings of the Joseon Dynasty[13:p.40]

중종 때 많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연산군의 경우 쾌락을 위한 것이었다면, 중종은 대비전에 연향을 올리는 효행과 군신간의 회합 목적이었다.

한편, 조선 중기 3기에 연회가 감소한 이유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정묘호란으로 전반적인 사회가 고통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4기는 영조와 정조시기로 문화 중흥기였으며, 전란에 휩싸였던 전 시기에 비해 영정조의 역량 발현과 함께 국가질서가 어느정도 안정되면서 비교적 많은 연회가 거행되었다.

5기로 분류할 수 있는 고종 때는 한시적으로 세도정치로부터 벗어났으며, 동시에 산업화로 재정적인 여력이 어느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일부 연회형 위락이 행해지기도 했다. 이시기 진찬과 진작의 형태로 연향이 이루어졌는데, 왕과 신정왕후의 생일축하가 목적이었다.

연향의 성격은 조선 초기 사냥, 격구, 활쏘기 등이 수반된 복합 위락문화 성격인 반면 중기 이후에는 상왕이 사망한 이후 대비와 중궁 등이 연향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연향은 일반적으로 내전 뜰에서 행해졌고 규모를 줄였으나 격식과 규례는 선례를 준용했다.

양로연은 왕이 주최하는 경우 대전 뜰에서 개최되었는데, 70세 또는 80세 이상 노인으로서 한정하였다. 지방에서는 왕이 순행하거나, 중앙의 고관이 지방에 머물며 개최하였으며, 수령 주관 하에 부, 목, 군, 현 단위로 해당 관아에서 거행했다. 왕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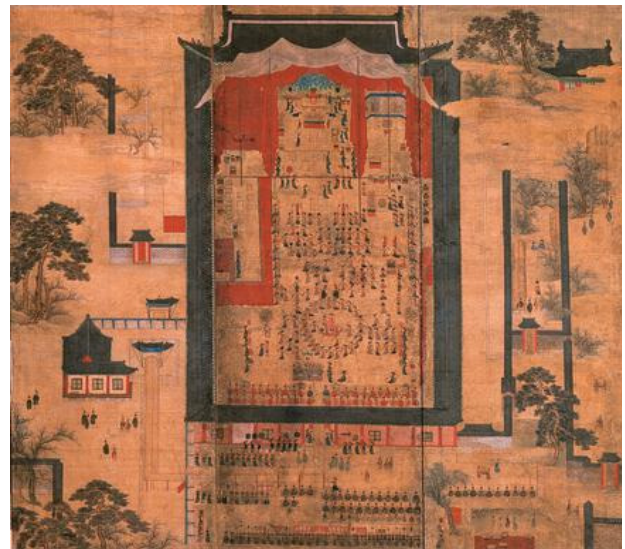


Figure 2. Gichugnyeonjinchandobyeong (己丑年進饌圖屏) <Sunjo, Court banquet(Jinchan) held in 1829>

전이나 편전에서 개최하는 양반중심 양로연은 120명~150명 정도 참여하였으며, 신분을 가리지 않는 합동 연회일 경우 300명이 넘기도 하였다. 왕과 왕비가 개최하는 양로연은 '남녀유별' 원칙이 적용되었고, 사대부 효행문화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세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숙종, 영조, 정조대에 이러한 양상이 부각되었다.

70세 이상의 원로 문신을 위한 기로연은 세종 대에 처음 설행된 이후 성종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졌는데,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기로회, 기영회, 석연 등 유사한 연회들이 행해졌으며, 주로 삼월 삼짇날과 구월 중앙절을 택해 열렸다. 기로연(정2품 이상의 문과 출신 관원 대상)을 행하던 곳은 주로 보제루(普濟樓, 현 서울 안암전철역)였고, 기영회(품계 2품 이상의 종친, 또는 경연관 대상)를 행한 곳은 훈련원(현 동대문 국립의료원)이나 반송정(盤松亭), 숙종 때 행해진 원로대신들을 위한 석연(錫宴)은 경희궁 경현당 편전에서 행해졌다.

기타 곡연(曲宴), 소연, 수연(壽宴) 등은 왕이 궁궐 내원에서 행하는 소규모 연회인데, 곡연은 궁중에서 왕이 친인척, 신료 등을 불러 베풀던 비공식적 연회를 말한다. 세종실록에 관련 기록이 처음 나타나고, 연산군 때 곡연과 소연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음악연주는 소략하였고, 격식도 엄격하지 않았다. 한편, 명종실록 4년 기사에 진풍정을 곡연으로, 중종실록 19년 기사에 천재지변과 흉년에 회례연 등을 곡연으로 대체하였다는 기록이 추적된다.

연회형 위락 활동을 분석한 결과, 1기에서 5기까지를 구분해 보면, 세종과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대에 연회형 위락 활동이 빈번했다. 세종과 성종은 연향문화가 성행했던 안정기였는데, 세종은 3명의 왕을, 성종은 3명의 대비를 봉양해야 하는 공통점으로 빈번한 연회가 행해졌다. 반면, 세조와 중종은 찬탈과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연회의 목적은 왕권의 위엄성, 군신간의 화합, 그리고 민심의 회유 등이었다.

즉, 세종은 회례연, 양로연 등 궁중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회를 공식화 한 인물이었으며, 성종은 법제화된 연회를 계승, 발전시켜 예제에 부합되게 운용, 개최하였는데, 왕권강화와 같은 정치적 포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반과 연계시켜 태평성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국가통합 성격이 농후하였다.

2) 강무형 위락활동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강무형 위락 활동은 사냥(446회), 매사냥(176회), 활쏘기(506회), 격구(107회) 등 총 1,235건이 나타난다.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기는 고려시대의 문화를 답습한 반면, 2기부터는 성리학 가치관에 의한 위락 활동이 전개되었다. 3기를 거쳐 4기에는 활쏘기가 중흥하였으며, 5기에는 조선말기 권신들의 세도정치로 인해 강무형 위락 활동은 쇠퇴기를 맞이하였다(Figure 3).

(1) 사냥과 매사냥

사냥과 매사냥은 1기[태조~세종(예종)], 2기[성종~중종]에 많이 행해진 주된 강무형 위락 활동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 급격히 쇠퇴하게 되는데, 원인으로는 민간의 피해, 연산군의 광적인 사냥, 전란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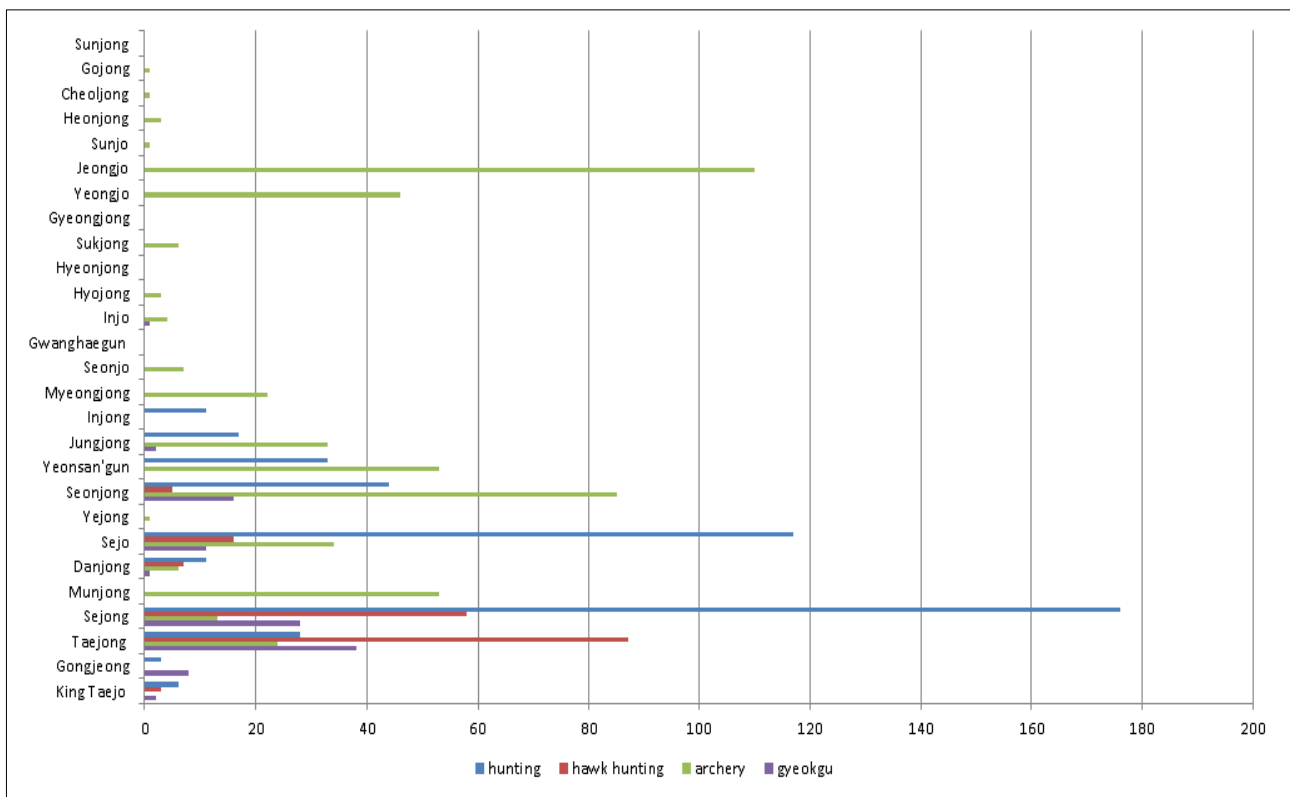


Figure 3. Amusement Activities for Martial Art of the Kings of the Joseon Dynasty[13:p.42]

사냥은 성리학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위락 활동의 연장으로 간주되었는데, 세종 때에 왕성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상왕 태종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데, 세종의 건강 이유로 사냥을 겸한 여행을 포천, 황해도, 평안도까지 동행했다. 도성 가까운 아차산은 물론, 북쪽으로 철원, 평천, 포천, 남으로는 수원과 용인까지 분포되었다. 세조의 경우 사냥행위는 매년 가는 시기가 달랐다. 왕의 사냥은 계절에 따라 명칭도 달리하는데, “봄에는 춘수(春蒐), 여름에는 하묘(夏苗), 가을에는 추선(秋獮), 겨울에는 동수(冬狩)”라는 춘추의 옛 제도를 왕실에서 지키고자 하였다.

연산군은 광적인 수준의 사냥애호가였는데, 연산군 10년 8월 기사에 사냥을 위한 금표제도의 원망은 왕실 능멸행위라 하여, 삼족을 멸하는 특별법을 만들게 하였다. 11년 6월 기사에 금표의 범위가 동은 용진(龍津), 남은 용인(龍仁), 북은 대탄(大灘), 서는 임진(臨津) 등 한양에서 각 1백리로 하였다. 그리고 12년 2월의 조준방 군사 1만과 병조 소속 3만을 사냥하게 한 내용에서 유흥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연산군 이후 사냥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데, 과도한 사냥규모 폐단도 있었지만, 성종 이후 성리학이 자리 잡은 유교적 가치관의 작용 이유였다.

매사냥과 관련하여 태조 4년 3월 매를 키우는 응방을 한강 근교에 조성했고, 단종 3년 정월에 광진(廣津, 광나루)에서 왕이 매사냥을 관람한 기록이 추적된다. 태종 때는 매사냥에 따른 민가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언급되고, 문종 때 응방은 도성 좌우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명나라의 진상 요구 측면과도 연계된다. 응방에서는 각도에서 진상된 매를 길렀는데, 민간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성종 때 응방 폐지의 전교에 대해 신하들은 두 견해가 있었는데, 민간의 피해가 많고 왕이 매사냥에 심취하여 국정(國政)을 판단하지 못 할 수 있다는 논리와 제사에 필요한 고기 마련, 그리고 진상품 확보로써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매사냥의 분기점으로 성종은 17년에 신료들의 반발로 응방을 파하고 기르던 매를 모두 날려 보냈다. 그러나 이듬해 ‘흉년이 들지 않을 것 같다’며 응방을 다시 설치했다. 응방은 연산군 때에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연산군 11년 9월에는 응방의 사냥개와 매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중종 10년에는 강원도와 황해도 외응방에 병조 소속 응사가 너무 많으니 폐지할 것을 건의한 대간의 간언에 따라 외응방은 폐지되었다. 외응방이 폐지된 뒤, 응사들의 권한도 크게 줄어들었고, 소멸 과정을 거쳐 숙종 41년에 매사냥 관련 응방제도가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왕들의 사냥(446건) 관련 기사는 매사냥(176건)을 포함하여 620건 이상 추적 되는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등 조선 전기의 왕들이 즐겨했던 강무형 위락 활동이었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 성리학적 정치이념이 사회적으로 정립되었고, 민간에 적지 않은 사냥폐해가 표출되면서 왕실의 사냥문화는

자제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2) 활쏘기

활쏘기는 조선시대 전체 왕들의 주요 위락 활동이었는데, 문(文)을 숭상한 조선 사회에서 유교적 가치와 연결했으며, 『주례』에 근거하여 활쏘기 ‘사(射)’는 예(禮)·악(樂)·어(御)·서(書)·수(數)와 함께 육예(六藝)로, 심신 수양은 물론 군신 화합과 인(仁)을 위한 행위이기도 했다.

왕의 활쏘기는 대사례(大射禮, 힘과 덕행을 살피 인재를 선발하는 공식적 활쏘기)와 연사례(燕射禮, 궁중의 비공식적 활쏘기)로 분류된다. 1477년 성종 8년에 왕이 성균관에서 선성(先聖)들에게 참례하고 명륜당에서 과거시험을 치른 후 사단(射壇)에서 대사례를 행하였는데, 조선 최초의 사례이다. 그후 연산군, 중종, 영조, 정조 대에 대사례가 거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1743년 윤 4월 거행된 영조의 대사례는 성균관 하련대에서 거행되었다. 이때 영조는 신하, 종친, 의빈 등을 대동하고 문묘에 참배한 후 심신수양은 물론 성균관 유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신하들과 함께 성균관에서 직접 활쏘기 하는 친시(親試)를 행했다.

태조와 세조, 영조와 정조 등은 직접 활을 쏘는 친시의 경우가 많았는데, 태조와 세조의 활솜씨는 신하들보다 월등히 우수했다고 전해진다. 활쏘기는 조선 전시기에 걸쳐 나타났지만, 영, 정조를 제외한 후기 왕들의 관사는 단순하게 관리들의 활쏘기만을 관람하는 소극적 행위였으며, 왕권강화와 문예부흥에 힘 쓴 영조와 정조는 조선후기 강무형 위락문화를 성대하게 견인한 경우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3) 격구

격구는 마상격구와 보격구로 대별되는데, 무인 출신인 태조와 태종 등은 마상격구를 애호했으나 왕들의 놀이는 주로 보격구 또는 관람행태였다. 세종 때 종친과 함께 보격구를 시행하였고, 세조 때는 규모가 확대되어 수십 명씩 단체경기로 승부를 겨루었다. 궁중이나 별궁 곳곳의 넓은 마당에 구멍을 파놓고 공을 쳐서 넣는 격방도 행 했는데, 아이들도 참가하였다.

조선 초기 격구놀이는 고려시대의 문화를 답습하면서 태조와 태종 등 초창기 왕들의 선호하는 대표적 위락 활동이었다. 활쏘기와 마찬가지로 왕이 직접 격구경기에 참여하거나 관람하였고 무과 시험에도 반영되었으며, 태종 때에는 주연이 함께 베풀어졌다. 『세종실록』 12년 9월에 격구를 폐지하지는 사간의 청을 윤희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추적되는데, “격구를 잘 하는 사람이라야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 할 수 있으며, 창과 검술도 능란하게 된다.”고 하여 무예의 관점에서 행해진 위락활동이었다. 또한 『세종실록』 13년 11월에, “선왕이 겨울에는 격구를 하고 여름에는 투호, 봄·가을에는 활쏘기를 하였는데, 지금은

겨울철이니 격구의 때이다. 내가 세자 및 신하들과 더불어 격구를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봄(활쏘기), 여름(투호), 가을(활쏘기), 겨울(격구) 등 강무형 유락행위가 왕의 심신수양을 겸한 4계절 행위요소로 작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격구는 성종 이후 점차 쇠퇴하게 되는데, 폐지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군사적, 과거시험 연장선상의 성격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였다. 병조 주관으로 시행된 무과시험에는 기격구(騎擊毬)와 보격구(步擊毬)를 시행하여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 등 28명을 선발했다.

조선시대 중요한 무예의 하나로 정기적 군대 열병식에서도 격구를 시행했으나 유교적 문치주의에 입각한 무예천시와 일부 귀족들의 지나친 사치문제로 폐해가 거론되어 쇠퇴되는 과정을 거쳐 효종 때에 이르러서 사라졌다. 즉, 조선 초 왕과 최상류층의 강무활동으로부터 단오 때 집단 축제로 상류층에 전이되었고, 과거시험 관련 무예 연마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가 중기 이후 민간의 겨울철 유락문화로 변모되어 소멸되는 과정을 거쳤다.

3) 유희형 위락 활동

조선시대 왕들의 유희활동은 관람형(33회), 낚시(15회), 불꽃놀이(18회), 투호(15회), 기타(13회) 등 총 94회로 조사되었

는데,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Figure 4).

1기[태조~세조(예종)]에는 사신연과 관련한 뱃놀이, 투호, 불꽃놀이 등이 상대적으로 흥행하였다. 세조때는 회례연, 양로연, 음복연 등의 국가적 연향행사가 행해졌고, 윤목놀이, 장기, 바둑 등 내전(內殿)에서의 정적인 놀이 행태가 이루어졌다.

2기[성종~중종]에는 나례, 처용무 등 유희행이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성종과 중종대에 투호가 많았고, 특히 연산군 때에 광대놀이가 빈번하였는데, 직접 처용무를 즐겼고, 광대를 궁 안에 들여 관람하는 폐단도 있었다. 한편 흥청악 등을 조성하면서 대규모의 나례와 연회를 즐겼던 시기이다.

3기[인종~현종]는 전란으로 왕의 위락 활동은 극히 자제되었다. 다만, 전쟁이 끝난 뒤, 광해군 등의 위락 활동은 광대놀이를 관람하는 정도의 소극적 위락정황으로 표출된다.

4기[영조~정조]는 조선 문화의 중흥기로, 정조의 복보적인 다양한 후원 관람행위는 위락활동을 절정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조는 오늘날 정책연구기관 성격인 규장각(奎章閣)의 각신(閣臣)들을 예외적으로 우대하여 창덕궁 후원에서 꽃구경하고 낚시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그러나 특이하게 영조 대의 유희형 위락활동은 전무한 상태로 실록에 관련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5기[순조~순종]는 조선 문화의 쇠퇴기인데, 순조대의 극히 제한적인 유락행위를 마지막으로 현종 이후 조선 패망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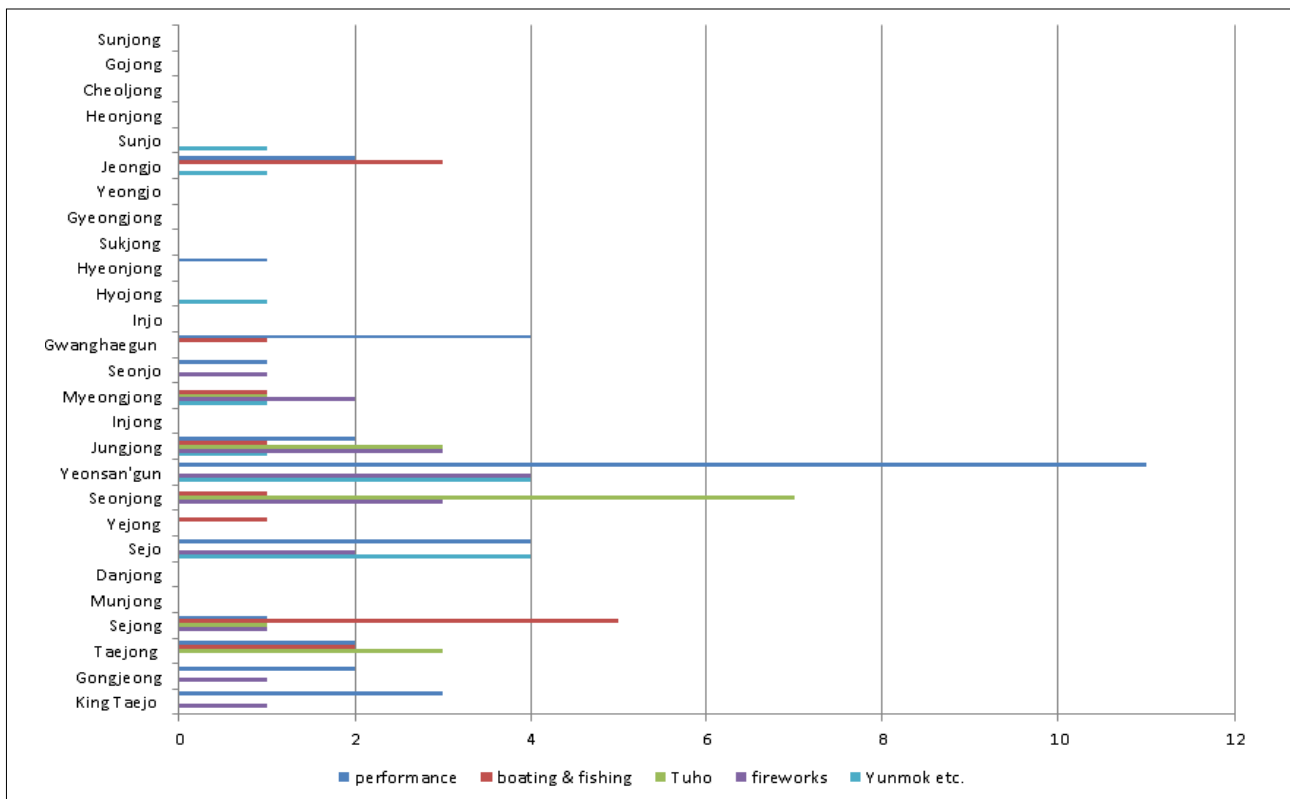


Figure 4. Play-Type Amusement Activities for the Kings of the Joseon Dynasty[13:p.44]

와 함께 왕실 유락문화도 사라지게 되는 시기였다.

유회형 중에서 정월대보름날, 단오, 추석 때 행해졌던 석전(石戰, 척석희, 투석희)은 왕이 단순히 관람만 했기 때문에 관람형으로 분류했는데, 석전놀이를 싫어했던 세종이후 쇠퇴기를 거쳐 예종 때 복원되어 조선시대 전기간에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특히, 조선시대 초기 왕가에서 석전 관전을 즐겼는데, 중심 인물로는 태조, 태종, 양녕대군 등 이었으며, 석전은 주로 단오 때 행해졌다. 『태종실록』 1년 5월 기사에 “5월 5일 대로에 크게 모여 돌을 던져 서로 싸워 승부를 겨루는 국속(國俗)이 있는데, ‘석전’이라 한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3년 5월에는 “상왕(태종)이 석전 할 사람 수백 명을 모집하여 좌우대로 나누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 때는 의금부에서 단오 석전놀이를 금하였는데, 양녕대군 등 종친들이 관전하며 독전했다하여 탄핵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세종 3년(1421) 기사에 상왕이 석전을 몹시 좋아하여 세종과 관람을 원했지만, 응하지 않으므로 석전은 즐기는 놀이(戲事)가 아니라 군사기술(武才)이라 설득하여 함께 관람하였다. 그후 세종은 사람이 상하는 놀이라 하여 석전을 폐지하였는데, 예종 때 복원되어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괄의 난 등으로 왕들의 위락활동은 암흑기였다. 특히, 연산군의 폭정으로 민심은 이반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진 상황이었다. 더욱 광해군도 인조반정에 의해 폐위되면서 왕실의 권위와 위락문화는 급격히 추락했다. 이러한 혼란기에 왕이 된 영조는 왕조의 역량과 권위를 재건하려 했으나 과도기적 상황에서 위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정조 대에 이르러 뱃놀이, 낚시, 불꽃놀이 등 위락문화 역량이 회복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정조의 죽음으로 단절의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경국대전’에 의하면 중국 사신이 한양에 들어오면 목적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곱 차례의 연향이 이어졌다. 하마연, 익일연, 인정전에서 왕이 친림한 다례(茶禮)와 초청연, 회례연, 고별연 등을 행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상마연(上馬宴)과 전연을 베풀었다. 연회에는 한강 뱃놀이 유관(遊觀)이 포함되었고, 사신 영접은 서대문 밖 모화관, 숙소는 남별궁(현 소공동 조선호텔)과 태평관(승례문 안 황화방) 등이었는데, 왕이 거동하여 연향을 베풀었다.

유회형 위락활동 중에서 잡희, 처용무 등을 즐겨했던 인물로는 연산군을 들 수 있고, 한강에서 행해진 뱃놀이는 주로 중국 사신들을 위한 연회 성격의 관람형 유회로 행해졌으며, 궁중 내에서 가장 간소하게 즐기던 유형인 투호는 성종대에 빈번하게 행해졌다.

불꽃놀이는 왕이 친림하여 백성과 함께하는 여민락의 가치 부여는 물론 왕권 강화와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복합문화 축제 형태로 성대하게 행해졌다. 양로연과 회갑연 등 큰 잔치가 있

거나 외국 사신이 방문했을 때 ‘화희(火戲)’와 ‘관화(觀火)’ 형태로 이어졌다. 화약기술이 발전한 세종대에 불꽃놀이 기록이 발견되며, 불꽃놀이를 즐겼던 관련 왕으로는 성종(3회), 연산군(4회), 중종(3회)을 꼽을 수 있다.

조선역사상 불꽃놀이를 가장 성대하게 행했던 인물로 정조를 들 수 있는데,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1795년)”에 근거하면 정조가 화성행궁에서 직접 활을 쏘고, 매화포(埋火砲) 관화를 즐기는 장면이 그려졌다. 1795년 화성행차 2월 14일 신시(15-17시)에 행궁의 ‘득중정’에서 대사례 활쏘기를 행하고 ‘낙남헌(落南軒)’에서 회갑을 맞이한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문무백관은 물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민락하며 불꽃놀이를 즐겼다(Figure 5).



Figure 5. Deungjungjeong-eosado(得中亭御射圖, 1795)[14]

4. 종합고찰

조선왕조는 유가적 사회정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예(禮)와 악(樂)을 중시했다. 이러한 예악의 제도는 왕들의 위락 활동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위락활동과 변천에 관한 종합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은 회례연, 양로연 등 궁중에서 주관하는 연회를 예악문화(禮樂文化)로 공식화 한 인물이었으며, 성종은 법제화된 연회를 계승, 발전시켜 예제에 부합되게 운용하였는데, 왕권 강화와 같은 정치적 포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반과 연계하는 성격이 농후하였다.

둘째, 궁중에서 행해진 위락활동은 연회형, 강무형, 유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회형은 회례연, 진연(경사시 잔치), 풍정(큰 규모, 정중), 진찬(의식 간단), 양로연, 사신연, 수연(壽宴), 곡연(작은 소연) 등이 있다. 강무형은 활쏘기, 격구, 사냥과 매사냥 등이며, 유희형은 나례, 처용무, 풍두희, 그리고 화산봉, 상화(賞花), 투호, 수박희, 낚시, 뱃놀이, 각투, 장기 놀이인 상희(象戲), 잡희 등이었다.

셋째, 위락활동은 ① 조선 초기 사신연, 강무형 중심의 문화가 고려시대 연장선상에서 펼쳐지는 답습기[1기: 태조~세조(예종)], ② 국가 안정기 때 성리학 문화가 정착되는 확립기[연회 규례의 제도화, 2기: 성종~중종], ③ 불안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침체되는 단절기[3기: 인종~현종], ④ 여민락(與民樂)으로 재정비되고, 왕실 문화의 자긍심이 표출된 중흥기[4기: 숙종~정조], ⑤ 세도정치로 왕권이 추락하면서 급격히 퇴조한 쇠퇴기[5기: 순조~순종] 등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정치사회문화 양상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답습기[1기: 태조~세조(예종)]→확립기[2기: 성종~중종]→단절기[3기: 인종~현종]→중흥기[4기: 숙종~정조]→쇠퇴기[5기: 순조~순종] 등 5단계 과정으로 전개된다.

넷째, 강무형 위락활동에서 왕들의 사냥 관련 기사는 622건이 추적 되었는데, 태종, 세종, 세조 등은 각 100회 이상 사냥을 즐긴 대표적 인물이다. 사냥장소는 포천, 황해도, 평안도 등 산림지역은 물론 도성 가까운 아차산과 북쪽으로 철원, 평천, 포천, 남쪽으로 수원과 용인까지 분포되었다. 산수풍광이 수려하고 지리에 익숙한 풍양, 철원지역 등 북방의 정세를 살피기 위한 방안, 그리고 별궁, 금표지역 장소성 등과 연계된다. 단오절 세시풍속 문화로 확산된 격구는 조선 초 왕과 신하들의 최상류층 마상격구놀이로부터 중기이후 무과시험의 마상격구와 상류층의 보격구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 후기에는 민간에 널리 확산되어 겨울철 달 밝은 보름날 남성들의 집단유락문화로 전승되는 과정이 추적된다. 특히, 강무형은 봄(활쏘기), 여름(투호), 가을(활쏘기), 겨울(격구, 사냥) 등 심신수양을 겸한 4계절 행위요소로 작용되었고, “봄은 수(蒐), 여름은 묘(苗), 가을은 선(獮), 겨울은 수(狩)”라는 계절별 사냥이 행해졌다.

다섯째, 장소성 측면에서 대비전 진풍정은 내정(자경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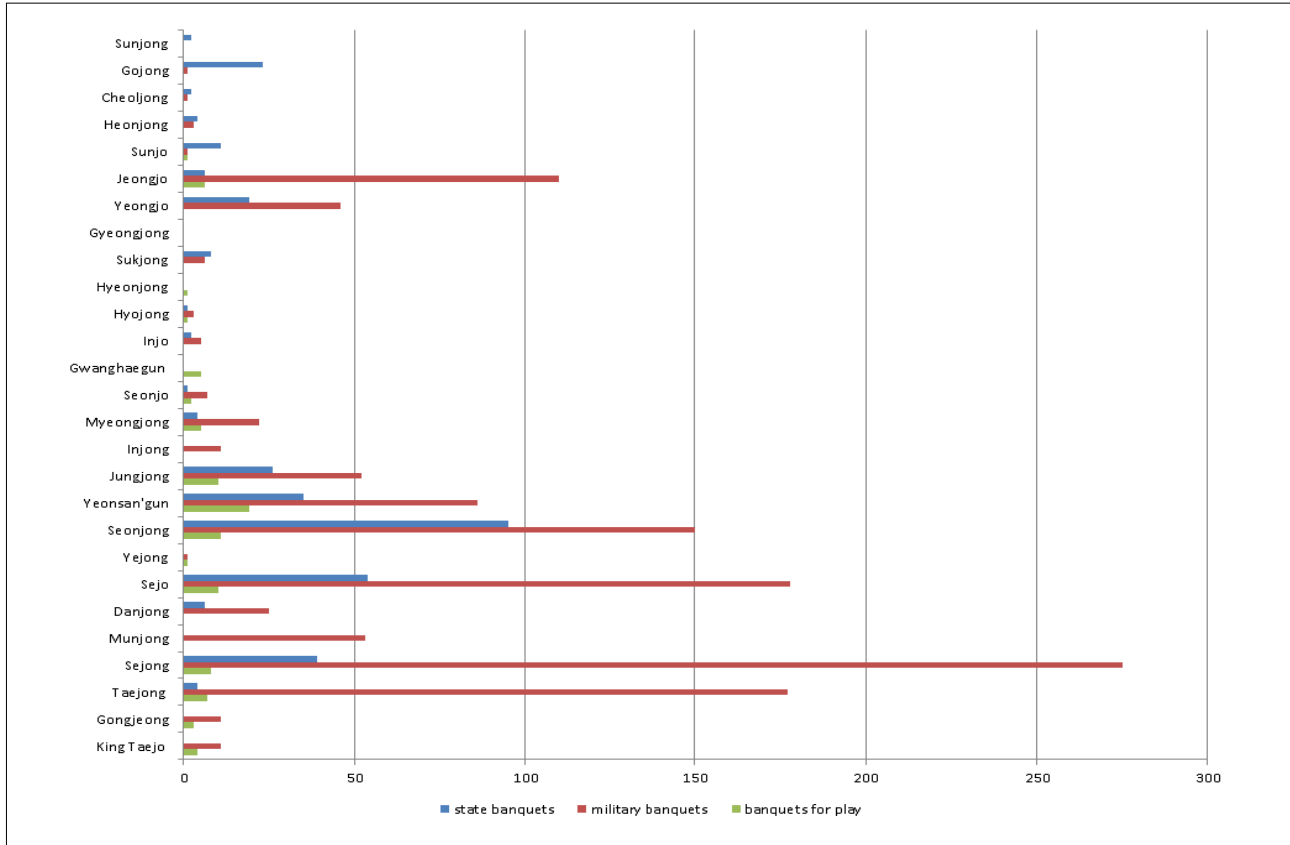


Figure 6. Amusement Activities for th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에서, 왕을 위한 진작은 정전 외정(명정전 등)에서, 상왕을 위한 풍정은 별궁(낙천정 등)에서, 종친들을 위한 관유(觀遊)는 궁 후원에서, 중국 사신들과 원로대신들을 위한 연회는 모화관(태평관)과, 별원(別園, 보제루와 반송정 등)에서, 뱃놀이 유관(遊觀)은 한강에서, 사냥은 금표가 설치된 강무장(금원과 원유)에서, 매사냥은 응방과 연계된 한강과 광나루에서, 활쏘기는 성균관(하련대 등)에서 행해졌다. 즉, 궁궐 외조, 치조, 연조, 후원의 범위를 넘어서 별원과 금원, 원유 등 한양에서 100리(禁標圈)까지를 활동영향권으로 설정하는 등 외원의 확장성(庭→園→苑→苑圃)을 추적할 수 있다.

IV. 결론

『조선왕조실록』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조선시대 왕들의 위락활동에 관한 유형별, 시기별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락활동의 시계열적 추이는 ① 조선 초기 사신연, 강무형 중심의 고려시대 연장선상에서 펼쳐지는 답습기[1기: 태조~세조(예종)], ② 국가 안정기 때 성리학 문화가 정착되는 확립기[2기: 성종~중종], ③ 불안한 정세 속에서 침체되는 단절기[3기: 인종~현종], ④ 왕실 문화의 자긍심이 표출된 중흥기[4기: 숙종~정조], ⑤ 세도정치로 왕권이 급격히 퇴조한 쇠퇴기[5기: 순조~순종] 등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조선시대 궁중에서 행해진 위락활동은 ① 연회형(회례연, 진연, 풍정, 진찬, 양로연, 사신연, 수연, 곡연 등), ② 강무형(활쏘기, 격구, 사냥과 매사냥 등), ③ 유희형(나례, 처용무, 풍두희, 그리고 화산봉, 상화, 투호, 수박희, 낚시, 뱃놀이, 각투, 상희, 잡희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셋째, 강무형 활동에서 태종, 세종, 세조 등은 100회 이상 사냥을 즐긴 대표적 인물인데, 도성에서 100리 권역의 산수풍광이 아름다운 곳, 북방을 살피기 위한 방안, 그리고 별궁, 금표지역 등과 연계된다. 격구는 조선 초 왕과 신하들의 최상류층 마상격구놀이로부터 중기이후 무과시험의 마상격구와 상류층의 보격구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강무형은 봄(활쏘기), 여름(투호), 가을(활쏘기), 겨울(격구, 사냥) 등 심신수양을 겸한 4계절 또는 계절별 행위요소가 추적된다.

넷째, 장소적으로 ① 대비전 진풍정은 내정에서, 왕을 위한 진작은 정전 외정에서, 상왕을 위한 풍정은 별궁에서, ② 종친들을 위한 관유는 궁 후원에서, ③ 중국 사신들과 원로대신들을 위한 연회는 모화관과 별원에서, ④ 뱃놀이 유관은 한강에

서, ⑤ 사냥은 금표가 설치된 강무장에서, ⑥ 매사냥은 응방과 연계된 한강과 광나루에서, ⑦ 활쏘기는 성균관에서 행해졌다. 즉, 궁궐 외조, 치조, 연조, 후원의 범위를 넘어서 별원과 금원, 원유 등 한양에서 100리 금표권까지를 활동영향권으로 설정하는 외원의 확장성(庭→園→苑→苑圃)을 추적할 수 있었다.

주 1) 『荀子』 권14. 『禮論』 “人不能不樂 樂則不能無形 形而不爲道則不能無難 先王惡其亂也 故 制雅頌之聲以道之”

주 2) 『呂氏春秋』 권5. 『大樂』 “天下太平,萬物安寧,皆化其上,樂乃可成,成樂有具,必節嗜慾,嗜慾不辟,樂乃可務,務樂有術,必由乎道,平出於公,公出於道,故惟得道之人,其可與言樂乎!亡國 戮民,非無樂也,其樂不樂,溺者非不笑也,罪人非不歌也,狂者非不武也,亂世之樂,有似於此,君臣失位,父子失處,夫婦失宜,民人呻吟,其以爲樂也,若之何哉?”

REFERENCES

- [1] Park, J. B.(2003). Historic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ungkyunkwan Case Study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Educational History, 13(-): 33-58
- [2] Ahn, T. W.(2014). A Study on the Yeonhyangdo in the Late Joseon Dynasty, Doctoral thesis, Dongguk University.
- [3] Kim, J. S.(2003). A Study on the Collection of Kyujanggak's Collection, Korean Studies, Article 113.
- [4] Hong, K. S.(2006). Sports of th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 [5] Choi, W. Y.(2011). A Historical Review of the Guguhei and the Conquest: Focusing on the palace,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6] Hong, H. S.(2015). Jeongjo's Enjoyment of the Palace Garde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3(4): 10-25.
- [7] 『Joseonwangjosillok(http://sillok.history.go.kr)』
- [8] 『Kyeongkugdaejon』
- [9] Shin, M. H.(2014). Unique Customs and Play in Court, May issue of Cultural Assets.
- [10] Shin B. J.(2011). Pres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Classification of King, History of Joseon Dynasty History.
- [11] National Central Library(2012). The Court Ceremony of the Joseon Dynasty also 3.
- [12] Hong, H. S.(2015). An Emergence of Tigers and Leopards in the Palace During the Joseon Period from the Environmental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6(3): 1-15.
- [13] Kang, H. M.(2016). A Study on the Kings's Amusement Activities through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Doctoral thesis of Woosuk University.
- [14] 『Deugjungjeongeosado』

원 고 접 수 일: 2018년 11월 9일
 심 사 일: 2018년 12월 13일 (1차)
 : 2018년 12월 18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8년 12월 18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